



편견과 이기주의 에서 해방을

지난호에 국내 채란업계 지도자들이 일본 채란업계를 시찰하고 온 귀국보고좌담회 기사가 게재되었다.

이중에서 가장 독자의 눈길을 끄는 것은 그들의 대부분 농장들이 77주 기준으로 평균 80% 이상을 산란하며 산란수에서도 300개에 도달하고 있는 점이다. 우리나라 양계산업이 국제수준에 도달했다고 착각하고 있는 동안에 이러한 격차가 벌어지게 되었다.

그들이 생산기술의 혁신, 경영관리의 혁신, 조직관리의 혁신을 통해서 소득을 얻는데 비해서 우리는 행정력에 의한 통제와 규제, 보호속에서 안주하려 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오고 말았다. 이는 비단 양계산업에만 국한된 것도 아니며 모든 산업에 적용되기에 최근 정부도 기업의 창의력 개발을 통해서 생산, 경영, 조직관리의 혁신을 이루도록 유도하기 위한 자율화조치가 계속되고 있다.

행정력으로 산업의 발전을 막았다는 것을 뒤늦게 시인하기에 이른 것이다.

양계산업에서 가장 비중이 큰 사료문제만 하

더라도 가격과 품질의 자율화후에 많은 부작용이 해소되고 있으며, 이제는 우리도 80% 이상 평균산란을 유지하는 농장들이 점차 많아지고 있는 것은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아직도 경제적인 사료를 선택할 줄 아는 지식부족과 이에 대한 훈련 정보의 부재로 품질보다는 명목상 가격에만 집착하여 값싼 사료를 만들 원하는 양축가들때문에 아직도 좋은 사료를 만들 수 없다는 사료공장측의 소리에 양축가들의 반성이 필요하다. 옥수수 아니면 안된다는 편견때문에 원료다변화가 이루어지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것 등은 편견이 얼마나 무서운 암적 존재인가를 알 수 있게 한다.



지난번 농협의 배합사료 구매계약이 사료공장의 공장도가격에서 10%할인된 가격에 이루어진 것 등은 현재 나는 적정가격으로 사료를 구입하고 있는 것인지 또는 내가 구입하고 있는 사료의 품질수준은 가격에 비해서 적정한 것인지를 생각하게 한다.

아직 과도기란 말을 흔히 사용한다. 과도기에는 어쩔 수 없다는 뜻이지만 과도기가 너무 길고 그 끝도 아직은 보이지 않으며 그 부작용도 너무 진것같이 느껴진다.

기술개발 투자로 제 2의 도약가능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업가의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재론할 필요가 없다. 기업은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며 이윤은 기술혁신, 경영과 조직관리의 혁신 등 혁신을 통해 이루어져야만 그 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

양계 산물이 다른 모든 물가에 비해서 가장 가격인상율이 낮았음에도 불구하고 유지발전되어온 것도 생산성향상으로 커버되어 왔기 때문이다. (농수 산식품의 인상율이 351.0인데 비하여 계란이 179.4, 닭고기가 213.9이며 총물가지수는 275.8이었다.) 그러나 우리의 생산수준이 아직도 양계 선진국에 비하여 크게 떨어져 있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도 너무 미약한 것이 사실이다.

생산비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료분야도 실무급 간부직원들의 의욕은 크지만 개발연구비 투자가 직접 이루어지는 사례는 극히 적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동물약품이나 양계기계



기구업체들도 외국에서 개발된 것을 그대로 도입하는 외에 별다른 개발연구비 투자가 활발하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정부와 여당은 기술개발투자 촉진법안을 만들어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라고 한다. 이 법안에 따르면 정부투자기관은 그 수입금의 3% 이내에서 기술개발에 투자할 것을 의무화하고 별도계정을 설치토록 하고 있으며, 일반기업은(제조업 등) 소득금액의 3% 또는 수입금의 0.2% 이내에서 기술개발계정을 설정하여 투자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전액 손비 처리하고 계정금액 중 기술개발투자액에 대해서는 30%의 세액공제를 하도록 함으로써 기술개발투자를 적극 유도한다는 것이다.

양계산업의 기계화, 자동화에 따른 성력화나 닭에 가장 좋은 사육환경을 부여하기 위한 계란 시험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며, 경제적인 사료생산을 위한 연구는 물론이며 동물약품업계에서도 새로운 백신약품개발 등 질병 퇴치예방 외에도 생산물의 처리가공분야 등 낙후된 생산, 유통, 소비에까지 새로운 활력소의 역할을 하기를 기대하여 본다.

계분 처리방법 개선되어야

지난 19일 환경청 발표에 의하면 20~28%가 18개 조사대상업종 중 오염물질 배출시설로서 부적당하다는 판정을 받았다. 다음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필름인화현상업소 다음으로 축산업이 부적합율이 높아 대표적인 공해업소로 인식되어버릴 가능성이 높아졌다.



업종별 폐수검사결과

	검진 수	부적합 수	부적합률 (%)
화학공업	606	103	16.9
제1차금속	196	42	21.4
금속기계	1,133	292	25.7
석유정제	39	5	12.8
가죽제조	247	67	27.1
음식료품제조	1,230	280	22.7
섬유	857	238	27.7
펄프제지	378	101	26.7
비금속광물	232	36	15.5
세차장	1,468	297	20.3
금속	28	3	10.7
사진제판	43	10	23.2
필름인화현상	77	25	32.4
연구소실험실	93	21	22.5
동물사료제조	34	5	14.7
축산업	172	49	28.4
기타	1,044	234	22.4
계	6,715	1,808	26.9

이번 환경청의 18개 조사대상업소 중에 축산업이 포함되었다는 사실자체가 축산업이 공해업소로 환경청의 감시대상임을 말해주는 것이다. 축산업중에도 양계산업은 다른 축종과는 달리 공해물질 배출이 아직은 그리 큰 문제가 되지 않는 않지만, 최근 채란업의 경우는 소비지 근처에서 단지화하는 추세에 있어 언젠가는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양계산업의 공해발생 요인은 첫째 계분의 악취, 둘째 계사주위의 파리, 모기 등 유해 곤충발생, 셋째 소음 등을 들수 있으며 계분처리시설의 개선으로 해결이 가능한 것들이다.

계분처리에 대해 최근 국내에서도 각종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다행한 일이 아닐수 없다.